

천년古刹앞에 고층아파트 '윈 말'

서울 미타사 8m거리에 '15층 콘크리트 병풍'

스님·신도 200여명 시공사에 중지요청

비구니 승방으로 이름난 천년고찰 서울 미타사(주지 자원이 절과 불과 8m 거리에 들어선)에 고층아파트 때문에 질식위기에 처했다. 전통 사찰의 보호는 고사하고 조망권 확보도 안된 채 미타사 정문은 물론 대웅전까지 14층 높이의 콘크리트 장막이 병풍처럼 쳐진 것.

미타사와 성북구 사업연합회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은 9월 25일 보문동 현대건설 아이파크(Ipark)조합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최소한의 문화환경권 보호를 촉구하며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절 쪽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을 지어 법당을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약속위반인 만큼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성북구청도 26일 보문동 Ipark조

합에 민원이 제기된 103동에 대한 건설중지 공문을 보냈으나, 건설사는 "법적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Ipark조합은 2000년 1월 1차 아파트 사업 승인시 성북구청이 보문사와 미타사에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받은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Ipark조합은 "절의 진입도로 4m확충과 범당쪽으로 유치원, 놀이터, 노인정을 만들어 주변환경을 고품격하게 하겠다"고 제의, 미타사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2차 사업계획변경시 설계를 변경하여 미타사와의 사전에 합의된 동의조건 약속을 어기고, 2000년 3월 절 쪽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미타사는 성북구청에 민원을



미타사·성북구 사업연합회 스님과 신도들이 9월 25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제기하고, 조계종 총무원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민·형사상 법적 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미타사 총무 원호스님은 "비구니 수행도량인 미타사 20여 대종일동은 최소한 사찰앞에 콘크리트 장벽을

경부고속철 민관협(대구~) 불참키로

대책위 "정부 약속 어기고 문화재 시굴강행"

경부고속철 대구~부산 구간과 관련 구성키로 했던 민관협의체가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구성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중고대책위가 민관협의체에 불참키로 결의하면서 경부고속철 노선 변경을 위한 반대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정산·천성산 고속철통과반대 시민중고대책위는 9월 24일 임기리 구간 공사현장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전에는 일체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협의대상 구간인 법기리와 임기리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중고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도관스님은 "건교부와 고속철 공단 의 태도는 노선 변경이나 협의체 구성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민관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를 통한 노선 변경을 기대해왔던 대책위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불참키로 함에 따라 노선변경을 위한 관통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 공약 이행 촉구,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를 위한 제3차 토론회(환경·경제적 측면 개회, 관통반대를 위한 1천인 선언, 분도수녀회 함께 하는 생명사랑 촛불 시위 등) 노선 변경을 위한 반대 운동의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아프간 소형댐 건설 지원

정토회, "전쟁피해 극심-난민구호 착수"

20여년간 계속된 내전과 5여년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을 위해 정토회가 소형댐 건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아프가니스탄을 답사한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아프가니스탄의 현상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 인도 불가촉 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마을개발사업을 한 경험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무실 1개, 사무실 1개로 구성된 10칸 짜리 교실을 짓기로 했다. 건축 방식은 흙벽돌을 위주로 한 전통방식을 지으며 재료, 기술, 노동력 등은 현지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인근 큐베마릭 학교 학생 200에게는 1년치

문구류, 교복, 신발 등을 지원한다.

칸다하르 근교 뻬즈웨이 군에서는 1,062명의 학생들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교실 17개와 신축이 필요한 교실 16개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2,00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 1년 동안 1인당 문구류 10달러, 교복 및 신발 20달러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뻬즈웨이 군 겨울 옷과 이불을 지원하고 어린이 3,000여명에게 텐트학교를 설치해줄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상암동에 BBS 미디어센터

서울시에 용지매입 신청, 2004년 착공

불교방송(사장 김규철)이 서울시가 조성하고 있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내에 최첨단시설을 갖춘 방송미디어제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불교방송은 지난 7월 24일 방송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용지매입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는 마포구 상암동 226-2번지에 위치한 상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17만 2,346평 규모다. 이 안에는 방송시설을 비롯해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IT관련업체 등 뉴미디어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1,431평의 부지신청을 해 놓은 불교방송을 비롯해 MBC, KBS 영상사업단,

CBS, YTN 등 다수의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국이 30일 용지매입 허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방송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암동 B5-3지구 2개 필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2004년에 착공해 200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에는 라디오 FM스튜디오를 포함해 인터넷 방송국, 불교영상제작센터 등을 갖춘 계획이다.

불교방송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10억원을 포함해 건물 건립까지 650억원 이상이 소요돼 성사여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익 기자

지난 8월 사경에 이른 중증 간경화 환자에게 간 기증을 해 화제를 모았던 도우스님. 이번에는 스님의 미담을 전해들은 한 시민이 사랑의 장기 기증 레이스에 동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이상

"스님따라 생명 살리고 싶어요"

한 시민, 사랑의 장기기증에 동참

빈(37·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씨. 이 씨는 8월 21일 도우 스님의 간기증으로 새 생명을 되찾은 환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조건 없이 장기 기증을하기로 결심했다.

"수술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스님을 보고 싶다"는 이씨의 소원을 전해 들은 도우스님은 9월 25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씨를 방문했다. 스님은 이씨의 손을 잡고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함께 펼쳐가자"고 다짐했고, 이에 이 씨는 "도우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내 간 기증을 하게 됐다"고 화답했다.

도우스님은 "간 기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격려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너무나 뜻 깊은 일"이라고 기뻐했다.

장기이식 수술을 한지 1달을 맞아 거의 회복 단계에 있는 도우스님은 이달중 양산 통도사로 내려 수행자의 길을 다시 걸을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위덕대, 조계종에

군승문제 결단 촉구

위덕대 군승장교 선발대학 지정 문제와 관련, 조계종과 진각종의 대

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진각종은 9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에 대해 불교종단협의회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고, 종단 차원에서 강경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 위덕대는 지난 9월 26일 '군승문제에 대한 조계종의 대이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조계종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1월 군승문제 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천태종 금강불교대학과의 연대 모색, 진각-위덕 군포교 백서 발간 등

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위덕대 박회택 기획과장은 "법률 자문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끝까지 군승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목탁소리 가사취장 고민해야 할 이유

한명우 (취재1부 차장)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는 9월 25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법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사에 부착키로 한 취장의 시안품을 놓고 모양과 색상, 재질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결과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불교계 신문 취재기자들의 생각은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우선 가사에 금속으로 된 취장의 부착 모습이 어찌나 승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였다. 여섯 가지 색깔로 법계를 구분함으로써 승가를 '계급화'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였다.

이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중진 스님들과 선원 강연 등의 견해를 들었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불교의 평등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대다수가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표시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슨 군인이냐"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스님도 있었고, 법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식의 다른 방법은 없느냐"며 금속 취장 패용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스님도 적지 않았다.

조계종은 6년 전부터 신도등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부터 시행된 사미의제 착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따라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승가위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진정한 승가 위계는 '제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계가 너무 영망이어서 '제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계급화'가 돼서는 곤란하다. 현실성이 없거나, 대 부분이 공감하지 않는 제도는 혼란만 부를 뿐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의제실무연구회가 찾아야 할 답도 바로 이것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김도원

총무 서덕재 교무 정도웅
재무 지설해 노전 김구해
신도회장 안영일 신도부회장 윤인오, 오귀분

사부대 중일동합장

삼광사 신도회		지회장 단	
총무위원 김종기	기획위원 조수웅	부산진구지회장 한옥현	동래구지회장 김석홍
교무위원 김수웅	조직위원 이영균	남구지회장 장군섭	해운대구지회장 하기수
재무위원 이화순	홍보위원 김형대	금정구지회장 이상호	북구지회장 차재철
주량원자	섭외위원 문경용	영도구지회장 이병호	사하구지회장 김범두
신순옥	부녀위원 김화순	동구지회장 구영희	서구지회장 윤철준
사업위원 민철규		중구지회장 최종경	강서구지회장 송종관
		연제구지회장 이선장	수영구지회장 강재복
		사상구지회장 문찬철	

삼광사 정기법회 : 매월 양력 1일, 2일 오전 11시 지관전 불교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 (051) 808 - 7111~5 FAX : (051) 803-1332
인터넷 삼광사 (http://www.samkwangsa.or.kr)

해인사승가대학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승가대(강원)에서는 신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사미반	00명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②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③ 행정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④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⑤ 주민등록초본	2부
⑥ 호적등본	2부
⑦ 건강진단서	2부
⑧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준비물	
① 사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② 입학금	
③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전영방법	
● 입방	◆ 서류 제출일 - 불기 2546년 9월 10일 (양력 2002년 10월 15일) 화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 불기 2546년 9월 11일 (양력 2002년 10월 16일) 수요일
	◆ 입방일 - 불기 2546년 9월 12일 (양력 2002년 10월 17일) 목요일
문의처	
● 전화 (055) 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인사 승가대학 주지 수봉세민·학장 정혜지오